| 현불논단 |

연말연시, 안녕하신가요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코로나 이후 거센 사회변화
일상의 삶 팍팍하게 만들어
주변 돌볼 '여유' 가질 시간
한숨 내려놓고 '쉬어 갑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
모든 생명의 '소중함' 일깨워
우리의 목적지, '더불어 행복'
생명이 함께 행복한 연말되길

연말연시다. 지금쯤이면, 잊고 있던 친지도, 잊고 있던 친구들도 번호를 찾아서 안부를 묻고 덕담을 건네는 것이 우리네 풍습이다. 필자도 우리 불자님들에게 묻고 싶다. 댁내 평안하신지요? 혹은 무탈하신지요? 라고 말이다. 유독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던 한 해이기에, 불자님들의 가정에 신상에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건네고 싶어서이다.

코로나19 시대가 겨우 진정되나 싶었더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우리 일상의 삶에 미친 여파가 거푸 닥쳐온다. 게다가 미국발로 시작된 금리인상이 우리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여러 가지로 근심과 걱정의 인사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건네지지 않을 수 없는 연말이고 연시인 것 같다. 그래서 더더욱 주변에 대한 관심이 간절해지는 때이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사성제의 첫 번째 도리인 고성제를 풀면 '인생은 고통스럽다' 라고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말이다. 좀더 찬찬히 고민해보면, 반드시 고통스러움만으로 얼룩진 것이 인생은 아닐진대 부처님은 왜 삶의 장면들에 대해 '일체개고(一切皆苦)' 라고 표현하셨을까? 분명 고통에 겨워 힘들어 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닐 테다.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직시하고, 그 직시한 고통의 원인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일구어내라고 하신 말씀일 테다.

우리는 올해 또 한 해를 떠나보내는 막바지를 맞이한다. 숨 가쁜 일상 속에서 또 바쁜 마음을 더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을 한국 사람이기에, 지금 이 연말이라도 한 숨 내려놓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쉬어서 쉬엄쉬엄 갑시다!"

이 글을 읽는 불자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주변의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이 말을 공유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너무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연말 한 달쯤은 쉬엄쉬엄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가져도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찬찬히 틈을 내어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를 억지로라도 낼 때가 아닌가. 연말이니까 말이다! 평소에는 바쁜 핑계라도 대었지만, 바쁜 핑계라도 접어두고 주변에 관심을 보이는 척해도 이상하지 않은 연말이니까 말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모든 생명들의 가장 고귀함을 일깨우는 가르침이기에, 그 생명들은 남김없이 모두 행복해야 한다는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지를 종종 혹은 잠깐 잠깐이 아니라 늘 잊어버리고 산다. 지금이라도 부처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되새겨, 잊어버리고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어 보자. 연말이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연말에는 다들 그러니까 말이다.

고귀함을 일깨우는 것,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내가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바라고 있듯이, 그들 다른 생명 역시 나의 관심을 기다린다. 우리가 '바쁘다' 는 일상의 핑계를 잠깐만 멈추고, 전화 한 통 걸어서 "안녕하신지요?"라고 물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 한 통의 전화가 관심의 표현이고, 소중함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올 연말연시에는 이제는 일상적이 되어버린 채팅 말고, 관심을 보여주지 못한 소중한 이들에게 전화 한 통 걸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내가 소중히 여긴다' 는 말 한마디 남보다 먼저 나누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함께 행복해지고,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우려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불자들에게 요구하는 목적지니까 말이다. 그래서 필자도 우리 불자님들께 먼저 여쭙고 싶다.

"안녕하신지요? 평안하시지요?"

社 說

조계종 제9대 교육원에 거는 기대

조계종 제9대 교육원장 혜일 스님 취임식이 12월 7일 열렸다. 이날 혜일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출가자 증대' 를 꼽았다. 그러면서 스님은 미래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출가 정신을 바로 전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과 군장병 등 미래 세대가 있는 곳은 어디든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출가자의 수행 정진이 시대를 선도하는 진리의 등불이며, 진정한 대자유의 길임을 널리 알리겠다"는 것이다.

출가자 감소 문제는 '출가 절벽' 이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 유지했던 한해 출가자 150명 선이 무너졌고, 코로나19 이후에는 1년 출가자 수가 100명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이는 10년 후에는 당장 종단 행정과 교육, 포교를 담당한 스님들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불교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는 눈 밝은 선지식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승가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의 책무는 막중하다. 출가 절벽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출가 증대 종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며, 시대에 맞는 승가교육을 통해 명안종사를 배출해야 한다.

특히, 출가자 증대 종책은 교육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단, 포교원이 함께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통을 통한 출가 홍보뿐만 아니라 현재 출가 문화가 현대인에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출가자들이 잘 안착할 시스템을 만들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승가교육기관 개편도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 제9대 교육원이 "수행하는 승가, 함께하는 승가, 미래를 여는 승가의 길"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자비나눔 대정정에 불자 정성 모이길

전국 사찰과 불교계 복지관에서 경제한파 속에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는 소외이웃들을 위한 김장김치와 따뜻한 방한물품 전달을 이어가고 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 이하가 이어지고 있지만 불교계는 사부대중의 자비나눔 온기로 훈훈하다.

최근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는 직접 만든 8000kg에 달하는 김장김치를 지역 내 소외이웃에 전달했고 강남 봉은사는 첫눈이 내리는 가운데 400여 대중이 1만 포기 김치를 담궈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도 2만 4000포기 김치를 전국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복지취약계층을 위한 대규모 겨울나기 나눔활동은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교계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 실천으로 나눔을 받는 이나 하는 이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주요 화두로 대두된다. 지자체마다 소외이웃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함에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3년 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나눔문화 또한 빨간불이 켜지면서 소외이웃은 더욱 증가하고 있기에 종교계도 앞장서 주위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웃사랑은 가진 자의 전유물일 수 없다. 기업체에서 벌이는 대규모 기부도 중요하지만 십시일반 정신의 힘이 더 큰 법이다. 다함께 자비를 나눌수록 그 사회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잡보장경(雜寶藏經)에 무재칠시(無財七施)라는 말이 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일지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다는 말이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임인년 끝자락서

임인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회한으로 얼룩진 한 해를 돌아보니 주역의 마지막 괘 화수미제(火水未濟)가 떠오른다. 촛불의 불꽃은 위로 타오르고 촛물은 아래로 떨어지는 염상누수(炎上漏水)로 더는 환하게 빛을 밝힐 수 없다.

화수미제는 불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형상이다. 그리고 미제(未濟)는 '아직 건너지 않았다' 는 뜻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의미다.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물과 불이 만나지 못하면 생명은 순조롭게 생성될 수 없다. 〈열반경〉이 설하는 '제행무상 시생멸법(諸行無常 是生滅法)' 으로 생사를 벗어나지 못해 영원히 덧없다.

세상은 수승화강(水升火降)으로 수화기제(水火旣濟)가 돼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속의 물기운은 위로, 불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는 수승화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불은 밑에서 물을 끓일 수 있고, 물은 위에서 불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심장의 불기운이 하강하고, 신장의 물기운이 상승하면 수승화강으로 심신(心腎)이 서로 통하여 신체가 건강하게 된다.



그림 · 최주현

머리는 차갑게 하고 손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옛말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차가워야 할 머릿속이 뜨겁게 불타오른다. 번민과 고뇌와 망상의 불꽃이 일렁거린다. 시기와 협잡과 망언의 불꽃이 넘실거린다. 욕심과 불만과 애욕, 탐진치(貪瞋癡)의 불이 타오른다. 배에도 불이 붙고, 가슴에도 불이 붙고, 머리에도 불이 붙었다. 인간 자체가 화택(火宅)이 되어 몸과 마음이 활활 불타고 있다.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이다. 누가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지옥불이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불붙은 마음으로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영원토록 매캐한 매연 속에서 눈도 뜨지 못하고 콜록거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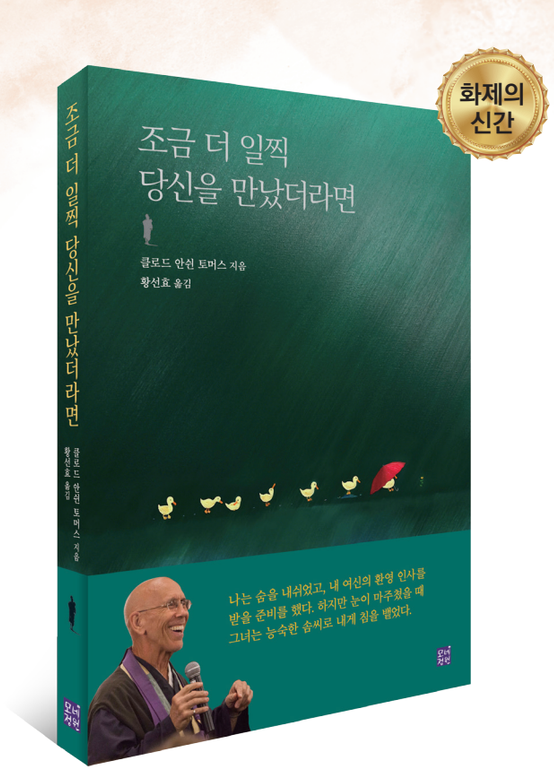
불난 집의 불을 꺼야 한다. 화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마음의 불을 끄면 열반에 이르게 된다. '생멸멸이 적멸위락(生滅滅已 寂滅爲樂)' 이다. 생멸을 벗어난 기쁨의 세계다. 수승화강이 되면 생사에 자유로운 일체무애인(一切無碍人)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승화강을 이룰 수 있을까? 뜨거운 머리를 차가운 물속에 담그면 되리라. 물속에는 머리만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담그면 몸이 저절로 뜨게 된다. 물과 몸이 하나 되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 내 마음을 푹 잠기게 한다는 그것이다. 해인삼매(海印三昧)에 들어 자신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한 해가 저물었다고 한탄하지 않고 새롭게 솟아오를 계묘년(癸卯年)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